

# 발명꿈나무 위한 '발명체험 한마당' 열리다



▲ 학생들의 창의성과 탐구력을 배양하기 위한 발명체험행사인 '제1회 고창발명축전'.

이날의 주요행사는 행사 성격상 발명창작마당과 창의공작체험마당으로 구분 추진됐다.

발명창작마당은 발명글짓기, 발명캐릭터, 발명만화 및 공모전 입상작 전시, 우수 발명상상화 전시, 우수 학생발명품 전시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창의공작체험마당은 3D 우드크래프트(woodcraft) 조립하기, 야생화 열쇠고리 만들기, 화학로켓 발사하기, 알코올권총 만들기, 솜사탕의 원리 및 미니카 조립하기, 포디프레임 조립하기, 화석표본 만들기, 고리비행기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고창교육청(교육장 박세근)은 삼인종합학습원에서 고창군 내 2백30여명의 초·중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 '제1회 고창발명축전'인 '발명꿈나무를 위한 발명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교육청은 학생 발명체험활동과 가족 발명체험활동, 과학원리 체험활동, 발명작품 체험활동 등 다양

한 형태의 발명체험을 실시하여 과학발명 행사에 접근이 어려운 농촌학생들에게 창의성과 탐구력을 배양할 계획이라고 행사의 추진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행사는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 지역사회에 발명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교육청은 이날 행사에서 글짓기, 그리기 등에서 우수작을 선정 총 96명을 표창하여 꿈나무들의 발명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발명 및 과학 체험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명 분위기가 확산되고 창의적이고 탐구력이 풍부한 발명인재들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특허청, 중국 상표국과 고위회담 개최

하동만 특허청장은 지난 6월 2일, 대전에서 AN Qinghu(안 칭후) 중국 상표국장과의 상표분야 고위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하동만 특허청장이 작년 11월 중국 방문시 상표국을 관리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 총국의 간구오핑 수석부국장(차관급)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양국간 상표분야의 교류협력의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회담은 최근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침해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에서 지재권 보호가 기업체에 주요 관심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동만 청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내 한국 상표의 보호강화 및 상표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은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양국간 상표 전문가회의, 상표보호에 대한 세미나 개최, 상표분야의 국제협력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했다.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는 비교적 모방이 용이한 상표 침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상표분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보호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이에 맞는 운동 따로 있다!

최근 웰빙 바람이 불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높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 필수 코스는 바로 운동. 그러나 운동도 자신의 나이 대와 체력에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해야 운동효과는 물론 몸도 상하지 않는다. 자신의 연령에 맞는 운동, 지금부터 알아보자.

### 20~40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는 신체적·생리적 조직이나 기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므로 유산소 능력과 근력을 유지하고 키울 필요가 있다.

근력운동은 중량을 이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횟수는 일주일에 이틀, 매회 15~20분 정도 하면 좋다.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조깅 또는 자전거, 수영, 계단 오르기 등을 일주일에 세차례, 30~50분씩 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 50~60대

신체 기능은 급격히 약해지고 여러 가지 성인병이 많이 나타난다.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때문.

50대는 20대보다 근력이 20% 정도 감소하게 되므로, 아령을 이용한 근력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또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의 근력운동을 1주 2차례, 20분씩 한다. 또한 이 운동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자들에게는 필수.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속보 또는 자전거 타기, 등산, 골프, 수영 등을 1주 3~5차례, 30~40분씩 하면 좋다.

### 70대 이상

이 시기에는 체력, 호흡기능, 심장기능, 감각기능, 근력 등이 감소하므로 노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약해지므로 안전한 운동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력운동은 가벼운 아령, 고무줄, 튜브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용해 실시한다. 한 다리 들어올리고 버티기 등도 좋은 근력운동이 된다. 이 운동은 1주 2차례, 10~15분씩 한다.

뛰는 것보다는 걷기, 속보, 산책, 골프, 자전거타기, 수영, 수중 걷기 등을 통해 심폐지구력을 유지한다. 또한 매일 20분씩 체조 또는 스트레칭을 실시해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어 많은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도 안되므로 평소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 “「발명하는 사람들」의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지역 대표**

- 김문자 유니온상사 대표
- 김석란 ㈜미래영상 대표
- 김윤생 백선상사 대표
- 김정기 중앙탑탑돌이보존회 회장
- 박 향 아성 대표
- 윤명희 ㈜한국라이스텍 대표
- 윤성순 콩그린식품 대표
- 조은경 다손식품연구소 대표
- 최승애 좋은날 대표
- 하현영 ㈜하영그린 대표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발명하는 사람들」의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기고문

# 특허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백승준 (백승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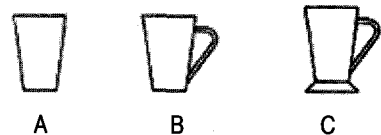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몇 평형 아파트인지 또는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으나 자기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서 '우리 회사가 이미 컵에 대한 특허를 받았는데 경쟁사인 A사가 어떻게 우리 회사와 같은 종류의 제품인 컵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든가, 또는 '우리 회사의 경쟁사인 B사는 외국의 특허를 그대로 도용했는데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 이는 특허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는 크게 원천 특허와 개량 특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천 특허란 어떤 기술 분야에서의 그 기술 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특허를 말한다. 이러한 특허는 대단히 드물고 대부분의 특허들은 상기 원천 특허의 기술을 개량한 개량 특허들로서 상기의 A사나 B사가 받은 특허들은 대부분 이러한 개량 특허들에 속하는 것이다.

원천 특허와 개량 특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컵을 예로 들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발명자 : 컵  
B 발명자 : 컵에 있어서, 측면 벽에 손잡이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C 발명자 : 측면 벽에 손잡이가 부착된 컵에 있어서, 컵의 밀면에 받침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상기에서 A 발명자가 최초로 컵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특허가 원천 특허가 된다. 그리고 B 발명자가 A 컵의 불편한 점을 개량하여 손잡이를 부착시킨 컵을 특허 받았다면 이는 개량 특허가 된다. 또 C 발명자가 컵의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컵의 밀면에 받침대가 형성된 컵을 개량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이 또한 A 및 B 특허에 대한 개량 특허가 된다. 이때 B 발명자는 A의 컵을 이용해서 개량 특허를 받았고, C 발명자는 A 또는 B 발명자의 컵을 이용해서 개량 특허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A 발명자는 상기 A 형상의 컵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B 발명자는 컵의 손잡이에 대한 권리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B 형상의 컵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A 발명자의 허락 하에 A 컵을 이용하여 여기에 손잡이를 부착시킨 형상의 컵을 제조할 수 있다. 그리고 C 발명자의 경우에는 A 또는 B 컵을 이용하여 여기에 밀받침을 형성시킨 형상의 컵을 제조할 수 있지만 역시 A 발명자 및 B 발명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즉 B 및 C의 특허 권리는 상기 청구 범위 내용 중 밀접한 부분은 제외되고 그 뒤에 기재된 내용만이 순수한 권리에 해당되며, A, B, C 세 사람 간에는 서로 이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개량 특허의 효과를 살펴보면, 원천 특허를 가진 A 발명자가 결국에는 B 또는 C 형상의 컵을 개발하여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량 발명자인 B 및 C가 손잡이 또는 밀받침이 부착 또는 형성된 컵을 개량하여 개량 특허를 받음으로서, A 발명자의 개발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회사가 특허를 받았다고 하여 그냥 좌절하지 말고, 상기 특허가 어느 단계까지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여 먼저 개량 특허를 받음으로써 전략적인 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 53년 7월 21일생
- 1981년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졸업
- 2003년 동아대학교 산업대학원 화학공학과 수료
- 공업진흥청 사무관
- 중소기업청 사무관
- 특허청 심사관
- 특허심판원 특허소송 수행 담당
- 현재 백승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장

## 이곳을 소개합니다!

# 특허사업화 성공의 길잡이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국외 출원건수가 세계 7위를 차지했다. 뛰어난 인재를 통한 신규 기술개발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러한 신규 기술이 사업화되어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출원건수가 사업화되는 비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및 기업이 시행착오 없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찾아가 보았다.



특히 여성 발명가 및 사업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여성 발명가가 신청한 특허기술에 대하여는 가점부여 등을 통한 우대 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실적 또한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점진적인 증가세 (2000년-6.5억원, 2001년-17.3억원,

2002년-29억원, 2003년-87억원)를 보이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는 특허출원 등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6년 발명진흥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알선센터는 특허기술사업팀과 특허기술평가팀으로 구성, 분야별 전문가들이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 기술이전 및 거래, 사업화 자금지원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알선센터는 지난 2002년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특허기술평가팀은 2001년 7월 특허청과 9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 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높여

지난 2002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특허사업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특허기술이 제품으로 개발, 생산되어 판매된 사업화 비율이 26.6%, 사업화 이후 이익을 얻는 등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알선센터에서는 사업화 비율의 저조 원인을 사업화 자금 부족, 마케팅 및 영업 미흡, 기술 및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꼽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지원사업으로는 첫째,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업자원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각 정부부처의 특허사업화 지원시책들을 일원화한 일괄 지원서비스체제인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가 1999년 구성되어 관리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총 1천7백88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8.4% 증액된 1천8백31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 외에 특허기술의 원활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특허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기술 보증·인증,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각 지원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추진해 오고 있다.

둘째, 자체적인 사업화가 어려운 개인,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이들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을 사업화 기반을 갖춘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에서 특허기술장터를 운영, 특허기술의 양도와 라이선싱,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M&A 등 기술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기술투자자와 수요자를 연계시켜 왔다.

온라인상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IP-Mart/www.patentmart.or.kr)'에는 약 2만5천5백건의 거래대상기술과 약 2만9천5백건의 사업화 정보 자료가 등록되어 있어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기술거래를 유도해왔다. 또한 오프라인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허기술상설장터'는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에 위치,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된 기술 중 일부를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다.

셋째, 특허기술의 이전·거래 및 사업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특허기술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술평가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수행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를 위해 기법 개발 및 기술평가정보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평가수행을 위해 알선센터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 총 24개의 평가기관과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개인 및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기술평가 수수료에 대해서도 80%까지 보조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한 때에 위와 같은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알선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알선센터의 사업화 추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등 내실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